

美術作品을 통하여 본 齒科医学

Demonstrating the treatment of periodontitis

Takhi Kaizhan (1355年作)

日本の 문헌에 보면 1850年代까지는 日本内に 齒科치료는 별로 대단한것이 아니였으며 그치로도 한국에서 전래된 한의원 같은데서 치료하였다. 그후 1644年 Tamba Yasiori에 의해서 쓰여진 약 외과, 치과에 관해서 30권의 저서가 소개되었다. 이 책속에는 “치주질환” “골염” “치은출혈”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. Hanaokhu Zhuikhen (1760

~1853)는 아편을 이용한 마취로 토순이나 구개 파열을 수술하였다고 하며 실제로 1192~1335년에 걸쳐 Kamakura 時代に 구강외과 수술이 시행됐다고 한다.

이 그림은 일본의 목판화로서 1355년대 作品으로 치주염의 치료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.



研究와 精進을 指向하는

寶 城 合 金

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65
代表 朴 允 三

☎ (253) 3411 · (255) 3024